

### 5월은 가정의 달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개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에 의해 맺어진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에 의해 맺어진 가정입니다. 혈통에 의해 맺어진 가정 안에는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등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 맺어진 가정 안에는 평신도로부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속장 각부서장 각기관 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르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맺어진 가정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시편 133: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안에는 이 땅에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에 의해 맺어진 가정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맺어진 가정 모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 하여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옛그제 식당에서 처음 뵈는 한국 분 한분을 만났습니다. 알버커키에 사신 자가 상당히 오래되신 분인데 저로서는 처음 만나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이런 분들을 사용하셔서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분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저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 땅에서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으로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에 가면 어차피 한동네에서 살게 되는 것 아니냐."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자기만 혼자 천당가려고 하는 이기주의의 신앙인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교회만 특별한 교회이고 다른 교회는 마치 오염되고 잘못된 교회처럼 반목하는 이기주의적인 교회 역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가정은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격려하며 연합하는 가정입니다. 좋은 교회 역시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격려하며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시 133: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I. 뉴멕시코 한인 소식 ..... page 2  
한인회 역대회장/ 한인 신임원 한인회 오리엔테이션/  
13대 한인회장 인사말 취임사/ p.2  
한인 업소 등록/ 뉴멕시코주 한인 골프클럽/ p.3  
한국학교 소식 Korean Language School/ p.4

II. 뉴스와 자연의 신비 ..... page 5  
뉴멕시코 레프팅/ p.4  
산타페 교회에서 공연한 한국 전통춤/ p.5  
자연의 신비: 모나크 나비/ p.5  
한국전 참전 용사 협회/ p.6

III. 교회와 선교 ..... page 7  
산디아 장로교회/ p.7  
주님의 교회/ p.7  
나바호 인디언 선교/ p.7

IV. 북한 방문기 ..... page 8  
평양 방문기( 이정우 前한인회장)/ p.8

V. 마음이 담긴 좋은 글 ..... page 10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철수와 영화)/ p.10  
어머니를 위한 詩 "만발"(권구자)/ p.10  
럭비공 같은 인생( 전용배)/ p.11  
광야 속에 축복 받은 교회(최건영)/ p.12  
살해 미수혐의로 가석방된 이춘임씨 돕기/ p.13  
붉은 태양은 철조망 넘어지고(이춘임)/ p.13  
웃어봅시다/ 일등 남편은?( 전용배)/ p.16

VI. 뉴멕시코 한인업소 ..... p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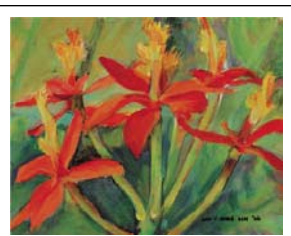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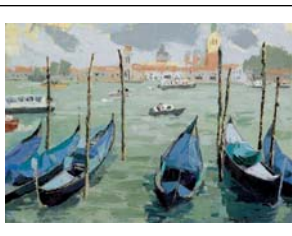
VII. 베품시장 ..... page 19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mailto:kuchachoy@q.com)

편집: 이철수 505-385-7539 [chalss2@hanmail.net](mailto:chalss2@hanmail.net)

### 주소

Voice in the Wilderness  
Korean K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뉴멕시코주 한인회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Tel:(505)271-1777 www.kaanm.com  
회장: 김두남 TEL: (505)270-1984 e-mail: kiminnewmex@msn.com

## 뉴멕시코주 역대 한인회 회장



(상좌로부터) 13대: 김두남, 8대: 신관순, 12대: 문상귀, 11대: 이정우, (하좌) 9, 10대: 최진, 초대: 박순삼, 2, 3대: 이경화, 4대: 김준호

## 뉴멕시코 한인회

### 오리엔테이션



## 뉴멕시코 한인회 신임원



(상좌로부터) 고산식부회장, 김기동부회장, 민형식부회장, 김영신환경미화부장, 이은주기획부장, (하좌로부터) 김미경문화부장, 낸시낸스부회장, 김두남회장, 천순이천교부장

## 제 13대 한인회장 인사말



몇 가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지난 달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취임사를 올립니다. 먼저, 광야의 소리를 통해 한인커뮤니티의 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소식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도 널리 퍼지고 우리 한인사회도 더 단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4월 100여분이 넘는 한인 분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취임식을 할 수 있도록 타주로부터 혹은 바깥

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취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뉴멕시코주 교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역자협의회 목사님들, 역대 한인회장님 및 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13대 한인회장으로 취임식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인회가 있기 까지 그동안 초대 한인회장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모든 역대 한인회장님과 그 임원진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그 동안 제12대 한인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문상귀 회장님과 묵묵히 각자의 맡은 바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신 임원진 및 자원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인회는 1987년에 설립된 이래 계속 성장하여 한인 회관을 개설할 뿐만 아니라 그 부설기관으로 한국학교와 어버이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학교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전속 미교장선생님 이하 일곱분의 교사가 봉사하고 있으며, 어버이회는 안교정 회장님과 정근태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20~25분이 꾸준히 모이시는 가운데 어버이회를 섬기는 자원봉사자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힘을 모아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꿈과 희망을 이루는 데 미약한 힘이나마 봉사하고자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 교민을 위한 한인회'의 초석을 마련하는 제13대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임기 2년 동안의 각오를 밝힘과 동시에 더불어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간단한 협조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의 임기동안, 모든 교민을 위해 우리 한인회관을 매일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애써 마련하신 회관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수시로 들러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효율적인 한인회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건물의 공간활용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잘 보수를 해서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음악, 댄스, 요가, 쿠킹, 꽃꽂이 등 한국의 문화센터 같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배움과 친교의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 한민족의 문화와 열을 발전시켜 나갈 계기를 삼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대 회장님으로부터 꿈꾸어 오신 한인상공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해외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조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무대에서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있다면 우리 한인사업체들에게 직간접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당장은 여러분 사업에 직접적인 큰 보탬이 되진 못할 지라도 회원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며 한인회와 상공회의 공동 관심 사업과 교제 및 정보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때에 과연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고 한인회 살림을 꾸려나갈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지만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드는 심정으로 바자회도 하고 여러 가지 재정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당부 드릴 말씀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 13대 한인회에 큰 힘을 실어 주신다는 마음으로 회원가입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어주신 회원님들의 회비 혹은 후원금을 밑거름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버리지 않고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정성과 한 방울의 땀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에 단 한 번의 회비입니다. 또한 회원가입서를 바탕으로 한인회원들의 정확한 주소록을 새로 만들고, 한인 사회의 소식을 교민 전체가 접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 2년 재임기간 중에 할 일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한글 학교와, 어버이회, 한인회 운영과 상공회 구성 및 발전에 관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경청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를 제13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변화의 동력은 저나 임원진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너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성경말씀은 제가 지난 10여년간 한인회나 지역사회 봉사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적용했던 성경구절입니다. 우리 교민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한인회' 임을 잊지 마시고, 각 분야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단한 관심과 참여 당부 드리며,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의 번창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뉴멕시코주 한인업소록

뉴멕시코주 교민들에게는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는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동시에 경제인들 간의 단합과 친목,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뉴멕시코주 한인회에서는 경제인 협회를 창립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년에 1회의 한인 업소록 발행에 필요한 명함이나 상호를 한인회와 관계된 임원이나 봉사자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조속한 시간(4~6월 중)내에 발행하여 교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제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문의: 문상귀님: 505-991-8888, 김두남님: 505-270-1984

## 뉴멕시코 한인 골프 클럽

뉴멕시코 한인 골프회가 2009년 제 2회 대회를 주최합니다.

참가대상은 골프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

일시: 2009년 5월 27일(수요일) 12:00

장소: Tanoan Golf Club

회비: 싱글 \$65 (부부 \$120)

식사: Osaka Restaurant

식사제공 및 푸짐한 상품이 걸려있고, 시간보다 일찍 가서서 free range ball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뉴멕시코 한국 학교 소식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NMKLS)

### 2009 여름반 / Summer Class

올해도 저희 학교를 위해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운 저희 학교를 항상 생각 해주시고 도와 주셔서 큰 탈없이 잘 마쳤습니다. First of all, I wanted to thank all of you for another successful school year.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r help. I'm so excited to offer following classes this summer. It is not often that we are fortunate enough to have instructors and interests to offer summer classes.

#### \* 여름 성인 한글반 / Summer Adult Korean Classes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여름 성인 한글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8주간 (6/5 - 7/31) 금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송호진 박사님을 모시고 하는 이 성인반은 최소 5명이 등록해야 운영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학비 \$90). 아동반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연락을 바랍니다.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NMKLS) is offering a summer session of Adult/Youth Korean classes. This special 8-week session will be scheduled for Friday nights, 6 - 8 PM (6/5 - 7/31). The instructor will be Hyo-Jin Song, Ph.D., and a minimum of five (5) students are required for this class. The tuition fee is \$90. Please contact me as soon as possible to register. If there is an interest for children's session, we will consider creating another class.

#### \* 여름 특별미술반 / Summer Art Classes

여름방학 중에 이시영 선생님 (MFA, U. of Penn.; 현 APS 초등학교 미술선생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은 특별미술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 인원수는 최고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등록선착순). 등록마감은 7월 3일입니다. NMKLS is pleased to offer following summer art classes lead by Mr. Siyoung Lee (MFA, U. of Penn.; APS elementary art teacher). Each class is limited to a maximum of 20 students (based on registration order). Please register by July 3rd.

1. 7/20-24 (월-금 / M-F), 09:00 - 12:00, 4세 - 성인 / 4-yrs to adult 서예 (입문반) Introduction to Korean Calligraphy & Painting (\$100 + 재료비/materials fee)

2. 7/27-31 (월-금 / M-F), 09:00 - 12:00, 4세 - 성인 / 4-yrs to adult 종이 점토 Paper-clay (\$100 + 재료비/materials fee)

3. 7/20-31 (월-금, 2주 / M-F, 2 wks), 13:00 - 15:00, 10세 - 성인 / 10-yrs to adult 디지털 사진을 이용한 입체조각 (\$200 + 재료비, 준비물: 디지털 카메라) Sculpture

using Digital Photography (\$200 + materials fee & must bring a digital camera)

### 2009년 가을반 / Fall 2009 Korean Classes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알버커키 공립학교 스케줄에 맞추어 가을학기과 봄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 가을학기는 9월11일/12일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수업시간은 청소년/성인반은 금요일 저녁, 학생반 (4세 이상) 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NMKLS follows the Albuquerque Public Schools (APS) traditional calendar. 2009 Fall Semester is scheduled to begin on September 11th/12th. Youth and adult class(es) meet on Friday evenings, and children (4-yrs and up) classes meet on Saturday mornings.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let me know.

교장 전옥미 Okmi Jun Blemel, MBA, Principal

뉴멕시코 한국학교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Address: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Contact: nm.kls@hotmail.com 또는 505-991-2160)

## Asian-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Festival

일시: 2009년 5월 17일(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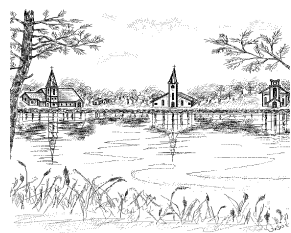
장소: Civic Plaza Downtown

내용: 태권도 시범, 부채춤, 가야금연주 기타

담당: 이선아 예술부장(505-828-0306)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뉴멕시코 래프팅



샘이 터지고 높은 산을 덮었던 눈들이 녹아 내리면서 리오그란데 강물과 차마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강 유역에 래프팅 회사들이 문을 열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래프트(펄목)는 가이드 한명과 4명의 사람이 탈 수 있는 11피트 래프트로부터 가이드 한명과 8명이 함께 탈 수 있는 16피트짜리까지 있다. 강물 수위에 따라 래프트의 크기를 결정한다.

### New Mexico rafting companies

Kokopelli Rafting Adventures, [www.kokopelliraft.com](http://www.kokopelliraft.com) (800)879-9035

Los Rios River Runners, [www.losriosriverrunners.com](http://www.losriosriverrunners.com)



(800)544-1181

New Wave Rafting Co., [www.newwaverafting.com](http://www.newwaverafting.com)  
(800)984-1444

Far Flung Adventures, [www.farflung.com](http://www.farflung.com) (800)359-2627

Known World Adventures, [www.knownworldguides.com](http://www.knownworldguides.com)  
(800)983-7756

Native Sons Adventures, [www.nativesonsadventures.com](http://www.nativesonsadventures.com) (800)753-7559

Santa Fe Rafting Co. [www.santaferafting.com](http://www.santaferafting.com)  
(888)988-4914

## 산타페 세인트 존 교회에서 보여준 한국 전통춤



(사진) 김미경 집사의 퍼포먼스

지난 4월 25일 세인트 존 연합감리교회에서 알버커키 지방 여성교회 36차 총회 모임이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를 돌봄"이란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알버커키 감리교회 소속인 김미경 집사는 한국 전통 부채춤을 선보였다. 눈부신 색상의 한복을 차려 입고 화관을 쓴 김미경 집사는 한국 전통 음악에 맞추어 부채를 펼치면서 춤을 추었다. 회의에 참석한 미국 여성들이 저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 [자연의 신비] 모나크 나비

새해 연휴를 맞아 샌프란시스코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몬트레이 베이를 다시 찾았다. 지난 12월 19일 몬트레이에서 한인회 주최 한국국악교육원 예술단 초청 '송년의 밤' 공연에 있었다. 특별히 찾은 이유는 그 동안 준비해온 모나크 나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다. 예정 시간을 넘겨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분의 도움을 받아 생생한 현지 취재를 할

수 있었다.

-나비의 이동



요즘 같은 추위에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몬트레이 반도 남단에 위치한 패시픽 그로브에 사는 주민들과 이곳을 특별히 찾는 관광객

객이다. 그 이유는 나비가 추위와 찬 바람에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패시픽 그로브는 몬트레이 지역 내에서 콜린튼 이스트우드가 시장을 역임한 카멜시와 함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다. 카멜은 페블비치와 골프장으로 너무나 유명한 명소로 알려진 곳이다. 살리나스(Salinas)가 존 스타인백의 짙은 향기에 묻혀 있다면 패시픽 그로브는 모나크 나비(monarch butterfly / 왕나비)가 매년 겨울을 나기 위하여 찾는 나비의 고향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날아온 모나크 나비 숫자는 약1만8천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8~9천 마리가 찾아 왔더니 올해엔 두 배로 찾아온 셈이다. 이들 모나크 나비는 대부분 알래스카에서 날아온다. 약 2천마일 거리를 날아온다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비의 날개 크기는 전부 합쳐도 대부분 4인치를 넘지 못한다. 그런 가녀린 날개로 날아오다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스터리다.

전문가들은 모나크 나비가 스스로 날개를 펼치면서 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마도 지구의 기류를 타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래스카의 빙하가 녹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캐스케이프 산맥까지 흘러내려 특이한 기후를 형성하는 것도 기류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모나크 나비가 높은 록키산맥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의 나비는 겨울철이 다가 오면 멕시코로 이동하고 서부 지역 알래스카 서식 나비는 캘리포니아 주로 온다. 이 말은 나비가 동서로 이동하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자연의 기적

미국 전역에 약 1억 마리의 모나크 나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나비 수명은 생각보다 짧다. 모나크 나비의 일생은 암컷이 유액식물인 밀크우드(milkweed plant) 잎사귀 위에 알을 낳으면 약 4일이 지나 부화하고 애벌레로 약 2주간 지내는데 이때 오직 밀크우드 잎사귀만 먹는다. 나비 애벌레는 밀크우드 잎사귀만 먹기 때문에 이 나무가 고갈되면 모나크 나비도 자연스럽게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일부 지역에서 밀크우드 유화나무가 잡목으로 분류돼 벌목되기도 한다. 밀크우드 잎사귀는 강한 독성



이 있어 새나 동물이 먹으면 죽는데 유독 왕 나비 애벌레에선 어떤 중독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애벌레가 이런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나 다른 곤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애벌레 후 번데기 같은 용기에 담겨 약 2주간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때 번데기 속에서 애벌레 녹색에서 오렌지와 검정색으로 변화되어 용기 밖으로 나오게 된다. 마침내 세상으로 나온 나비는 대개 약 2-6주의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알래스카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나아오는 모나크 나비의 수명은 약 6-8개월로 알려지고 있다. 즉 같은 나비라도 환경에 따라 수명이 다른 점이 있다. 알래스카에서 날아 온 모나크 나비들은 지금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데 2-3월이 되면 교미가 끝나고 암컷만 다시 샌후아친 밸리로 이동해 알을 낳고 죽게 된다. 그러면 다시 알이 부화하고 나비가 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4대 후에 알래스카를 거쳐 중 캘리포니아로 돌아 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수수께끼로 남는 부분은 4대가 거친 후에 날아오는 나비가 대부분 똑 같은 나무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어떻게 4대 후 종조할아버지의 자리를 알겠냐는 뜻이다. '자연의 기적(nature's miracle)'으로 불리는 이 숙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아마도 나비가 대대로 슈퍼 칠을 물려주고 있을지도.

모나크 나비의 이동이 스펙타클하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동이 철새 떼처럼 웅장하게 보이지 않고 수백 마리가 뭉쳐 작은 포도송이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유화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어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차가운 바람과 비에 모나크 나비가 대단히 약하다. 그래서 파듯한 날이 아니면 왕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날아가는 나비를 보기가 쉽지 않다.

패시픽 그로브에 가장 많이 온 것은 1951~1952으로 약 1백만 마리였다는 풍문도 있으나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는 없다. 현재 패시픽 그로브외에 모나크 나비 있는 지역으로는 산타루즈, 피스모 비치, 멀리 산타바바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시픽 그로브지역에서 해마다 10월 첫째 주 토요일을 모나크 나비 기념일로 정하여 butterfly parade 행사를 하고 있다. 모나크 나비의 홈 커밍(home coming)을 환영하는 뜻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패시픽 그로브를 모나크 나비 보호 구역(butterfly sanctuary)으로 정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모나크 나비를 잡거나 소음으로 방해할 경우 5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3월이 오면 모나크 나비의 여정은 다시 시작된다. 암컷 모나크 나비가 모두 떠나고 수컷만 남아 자신의 수명까지 살다가 죽게 된다. 이번 모나크 나비를 취재하면서 관심 있었던 사람들로 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모나크 나비가 서식하고 있는 패시픽 그로브에서 Butterfly Grove Inn을 운영하는 에릭 박선생님이 주신 사진

과 정보에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감사 드리며 그 외 협조해 주신 다른 분들에게도 같은 뜻을 전해 드린다. 날씨 좋은날 왕 나비들이 떠나기 전에 꼭 알현을 해야 되겠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동열 드림 / 미주주간현대)

## 한국전 참전 용사 협회

**What is the K.W.V.A.? What was the Korean War all about? Who started it? How did it end?**

K.W.V.A.: The initials stand for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a national organization of Americans who served in and survived the 1950-1953 war, which was never officially concluded. Veterans who served in Korea since hostilities ceased are eligible to belong to the K.W.V.A. because the war continues to remain in a state of suspension. Fighting was "suspended" by a ceasefire agreement.

Two Koreas: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 Allies and the USSR negotiated territorial agreements that included the division of Korea at the 38th Parallel, splitting the nation roughly in half and creating two: The Republic of (South) Korea ("R.O.K.") sponsored primarily by the U.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two diametrically opposite political entities.

Why Did We Fight This War? Peace abruptly ended June 25, 1950, when North Korean forces crossed the 38th Parallel and invaded South Korea intent on "unifying" the peninsula under communist occupation. Taken by surprise, R.O.K. and American army support units were pushed to the south-eastern sector of the Korean Peninsula. They were able to regroup and hold their ground at what came to be known as the Pusan Perimeter. They fended off the invasion until reinforcements arrived from Japan and Okinawa. That September, U.S. forces staged a landing assault at Inchon and fought their way into the heartland. Another landing occurred on the eastern coast, followed by a push almost to the Korea-China border, demarked by the Yalu River. By then, some member nations of the U.N. sent varying numbers of support personnel, the larger military contingents being from the British Commonwealth (a division) and from Turkey (a brigade).

Just as the coldest winter in a century was setting in, thousands of Chinese troops poured across the Yalu River in a massive attack that drove the Allies southward to



evacuation at Hungnam. Seoul was lost once again in early '51, then retaken that spring. The front, most of which was to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stagnated into trench-type warfare with sporadic, fierce combat for key hilltop positions. Russian MiG fighter jets engaged U.S. Sabrejet fighters and bombers almost daily in air battles over North Korea. The air war was fought mostly between American and Soviet adversaries, although the latter's participation in this war was not publicly acknowledged by either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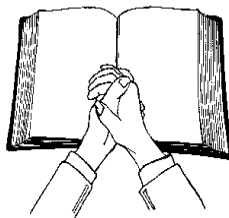
A few months after Soviet dictator Stalin died, contentious truce meetings at Panmunjom, which and been going on for more than a year, resulted in an agreement to exchange sick and wounded POWs. That was followed a few weeks later by a ceasefire agreement ending hostilities. South Korea gained almost 1,500 square miles of territory it didn't have before the war began.

The War's Toll in Human Life: Estimates of people killed and wounded (both sides, military and civilian) exceed 420,000. South Korean non-combatants killed or wounded exceed 99,000; total U.N. military casualties are estimated at 180,000. Death toll among American military forces exceeded 34,000. North Korean and Chinese casualties are estimated at 142,000.

The Pay-off: Allied and South Korean efforts prevented the defeat and occupation of South Korea and halted communist ambitions to control the entire North Asian Pacific Rim, including a vulnerable (at that time) Japan. Both South Korea and Japan became major cultural entities and industrial contributors to the world economy. In stark contrast, North Korea descended into economic, political and moral bankruptcy. Its populace is controlled by a well-fed military force loyal to a dictator bent on having intercontinental nuclear weapons at his fingertips. (Provided by Frank Praytor [[praypro@swcp.com](mailto:praypro@swcp.com)])

## [교회 소개] 산디아 장로교회

저희 Sandia Presbyterian Church 의 한인 교회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모이기 때문에 찬양과 나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한 해 한인 사역의 목표는 '단합' 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처럼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vertical), '단합'으로서 서로간의 사랑(horizontal) 키워가고자 합니다. 본 예배로는 9시 반에 영어 찬양 예배를 본 교회 교인들과 다같이 드리고 그 후에 11시부터 한인들끼리 모여 한국어로 찬양을 하고 서로간의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멤버들이 유학생이기에 서로 비슷한 고민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서로 나누며 기도해주며 서로간의 사랑을 키워갑니다.



다.

또한 지난 4월에는 Albuquerque의 여러 한인교회 청년들과 연합하여 찬양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렸으며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들이 모이지만 그러기에 더욱 서로간을 섬기며 기도해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Sandia Presbyterian Church 한인교회입니다.

## [교회 소개] 주님의 교회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주소: East Gate Church/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23

담임목사 김의석 (505) 903-2297

주일예배 주일 오후 2시

Weekly Schedule

ㄱ. 월요일 오전 10시 Bible Study 'The Rose of Sharon'

장소: 한인회관

ㄴ. 수요일 오후 7시 Wednesday service 목사관에서

ㄷ. 금요일 오후 8시 Prayer Meeting 장소: Prayer Mountain Christian Vision Academy in La Jara, NM.

ㄹ. 격주 토요일 오후 5시 Bible Study

'The planted seed' (Location TBA)

## 젤럽에서 온 소식

(Navajo Nation에서 선교하는 조성현 선교사의 글)

### 미국 원주민들의 특성

그들은 버려진 자, 상처 받은 자, 강도 만난 자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 여느 제 3세계 국가들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상처가 왜 미국 원주민들에게는 더 심각한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원주민과 타 지역의 원주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첫째로 이들은 알래스카 원주민(에스키모, 알류트)과 다르다.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19세기 말엽 러시아로부터 미국으로 편입되었다. 이들은 오히려 전보다 좋은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 이들은 중남미 원주민과 구성면에서 외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다. 중남미 원주민은 인구가 90%정도로 다수 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미국 원주민은 전체 인구가 1%내외로서 소외된 계층이다. 또한 백인들의 복지와 중남미에 대한 인구정책 또한 다르다. 중남

미에서는 차별대우는 받았지만 멸종 정책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인디언 정책이 멸종정책이었다. 처음 2천만 정도로 추산되던 원주민이 1900년도에는 23만 명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미국원주민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혹한 처우를 받았다는 증거이다.

셋째로 이들 미국원주민들은 캐나다원주민과 다르다. 처음에는 같은 입장이었던 원주민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은 미국독립전쟁에서부터이다. 영국 측은 미국독립군과 전쟁을 하면서 미국원주민들 일부를 자기들 진영으로 끌어 들여서 함께 전쟁을 하였다. 전쟁에서 밀리면서 후퇴를 하던 영국 측은 또 다른 영국식민지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캐나다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 측과 원주민들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원주민들은 그렇지 않다. 일방적으로 말살 당했으며 점차로 소외되어 갔던 것이다.

넷째는 이들은 흑인들과도 다르다. 흑인들은 비록 고향을 떠나와서 미국에서 노예생활을 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정신적인 고향인 검은 대륙이 있으며,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아프리카의 소수민족의 독립과 권익향상은 이들의 자존심을 되찾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인권운동의 결과로 현재 미국 내의 흑인들은 상당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다섯째로 이들은 다른 지역 출신 이민자들과는 다르다. 이들은 비록 소수 민족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다. 모든 이민자들은 살기 위해 이주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을 향한 의지는 본능적이라고 보아도 좋지만 미국 원주민들은 자기 고향에서 땅과 조상들의 생명과 모든 삶의 여건들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의지를 일시에 잃어버리고 말았다.

### 2009, Tent Revival Schedule

Date	Location
1. May 18 - 23, 2009	Church Rock, NM
2. May 25 - 29, 2009	Rocky Point, NM
3. June 1 - 6, 2009	Dilkon, AZ
4. June 8 - 13, 2009	Kayenta AZ
5. June 15 - 20, 2009	Pinon, AZ
6. June 23 - 27, 2009	Sweetwater, AZ
7. June 29 - July 4, 2009	Monument Valley, UT
8. July 6 - 11, 2009	Foster Springs, NM
9. July 13 - 18, 2009	Forest Lake, AZ
10. July 20 - 25, 2009	Torreón, NM
11. July 27 - Aug 1, 2009	Teesto, AZ
12. Aug. 3 - 8, 2009	Tuba City, AZ
13. Aug. 10 - 15, 2009	Leupp, AZ
14. Aug. 17 - 22, 2009	Bista, NM
15. Aug. 24 - 29, 2009	Inscription House, AZ
16. Sep. 1 - 5, 2009	White Cone, AZ
17. Sep. 7 - 12, 2009	Red Lake, AZ
18. Sep. 14 - 19, 2009	Bitter Springs, AZ
19. Sep. 21 - 26, 2009	LeChee, Az

위 의 일정은 저의 올 여름 사역일정입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조 성현 선교사)

## 뉴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도둑 맞는 차

1. 2005 Dodge Ram pickup
2. 1994 Honda Accord
3. 1992 Chevrolet Full Size C/K 1500 pickup
4. 2004 Ford F150 Series
5. 1998 Honda Civic
6. 1997 ford F 250 Series
7. 1990 Toyota Camry
8. 2006 Ford F350 Series
9. 2005 Ford F Series
10. 1994 Jeep Cherokee/Grand Cherokee

(Source: 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

알버커키 지역이 차량 도난률이 높다. 8위에 해당한다. 경찰이나 보험회사는 새로운 법 제정이 차량 도난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란다. 알버커키는 전국 보험 범죄 부서에 따르면 2008년에 자동차 도난 순위 8위에 오른 것이다. FBI에 따르면 Bernalillo, Sandoval, Torrance, Valencia 카운티 등은 2007년에 7위에 올랐었다. 리차드슨 주지사는 4월 초에 차량을 도둑한 범죄자에게 형량을 늘이는 법안에 사인을 했다. 첫 범죄자 경우는 4급 중죄로 처리되며 두 번째 경우는 3급 중죄로 이후에는 2급 중죄로 취급 할 것이다.

## 평양 방문기

이 정우 前 뉴멕시코 한인회장

### ● 가깝고도 먼 곳 ●

4월 26일 평양을 방문하기 위하여 인천을 경유하여 북경에 도착한 후 고려 항공에 탑승하였다. 탑승인원은 외국인들로서 거의 만석을 이루고 승무원들의 표정은 무표정하여 다소 긴장된 인상을 준다. 잠시 후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한다고 하여 밖을 보니 한산하고 조용한 시골 풍경을 볼 수 있고 순안공항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하였다. 통관과 입국수속은 비교적 간편하게 마치고 입국을 하고나니 마중 나온 북한의 안내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로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였다. 순안 공항에서 평양까지는 한 시간 이내 거리로서 그리 멀지 않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아서 그런지 더욱 가깝게 여겨진다.





길옆에 한 줄로 서있는 가로수가 인상적이며 여덟 적에 시골길을 달리는 듯 한 느낌을 주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들은 어쩌면 우리 일행을 환영해 주느라 손을 흔들어 주는 듯한 착각에 잠겼다.

들녘에는 아직 이른 봄철이라 그런지 한가하고 5월 중순이나 지나야 바쁜 농사철이 된다고 한다. 평양 시내가 가까워지면서 도로주변으로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개선문과 인민 대학습당 등 귀에 익히 들어본 건물들과 수신회로 차량을 통제하는 여성 교통 안내원의 모습도 새로운 이국적인 모습이다.

교통이 혼잡하지 않아서 기능하고 전력을 절약 있어 그렇게 한다고 한다. 호텔에 가까이 오면서 안내원이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준다. 여행 중에 차창 밖으로 사진촬영을 하지 말 것이며 특히 군 시설이나 군인을 촬영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고려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평양에서 양각도 호텔과 함께 최고의 호텔이라나.

도착저녁에는 북한 해외동포 사무실에서 조국 방문 환영 만찬이 있었다. 대동강 송어요리와 송학 소주로 건배를 하였다. 비교적 모든 음식은 담백하고 맛이 좋았다. 약간 긴장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정한 분위기속에서 만찬을 마쳤다.

둘째 날 묘향산 관광을 떠났다. 평양에서 대략 2시간 정도, 평양을 벗어나 준 고속도로를 달리며 가는 도중에 오고가는 차량이 거의 없고 우리일행의 버스가 길을 전세라도 낸 듯 전용으로 달리고 있는 듯하다.

가는 도로 주변에 한가하고 특이한 것은 산들이 절반 이상까지 계단식 개간을 하여 나무가 없다. 식량 증산을 위하여 개간을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개울목까지 전부 계단식 밭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매년 식량이 부족하여 아사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안타까운 소식이다.

가는 도중에 북측 안내원들과 우리 측 일행과 북한의 통일 정책 생활 습 등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첫째, 북의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그네들은 생존을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놈들이(그네들은 모든 사람들이 미국사람을 그렇게 부른다) 남한에 숨겨 놓은 핵무기로 북한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 죽을 수는 없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지난 10년 동안 잘 쌓아 놓은 남과 북의 관계를 이명박 정부가 하루아침에 까맣게 버렸다고 격한 감정을 노출한다.

4월 29일자 평양 노동신문을 보았는데 온정철이라는 논설위원의 내용 중에 조국통일은 온 겨레의 숙망이며 막을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온 겨레가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갈망하고 있으며 전 민족이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서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집권 세력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자주통일 시대에 이

룩된 모든 성과들을 뒤집어엎기 위해 노골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심하게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이며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잘 포장된 내면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묘향산에 도착하여 국제 친선 관람 관을 참관하였다. 그리고 남북 5대 사찰 중에 하나인 보현사를 둘러보고 북한의 국보 23호인 8각 13층 석탑을 볼 수 있었고 보현사는 임진왜란 당시 서산대사가 외병을 일으킨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묘향산 계곡에서 점심을 들고 시원한 계곡물에서 휴식을 취하고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였다. 많은 주민들이 삼삼오오 직장동료들과 둘러앉아 점심들을 들고 있다.

한 여자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평양에서 왔고 직장 동료들과 야유회에 왔다고 한다. 비교적 부담 없이 대화가 잘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러한 모습은 남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우리들도 그렇게 지냈던 시절도 있었다. 한편으로 같은 민족끼리 자유롭게 왕래하여 좋은 곳도 구경하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아침에 6시경에 기상을 하여 일행 몇몇이 걸어서 대동 강변 산책을 하다, 가는 길에 평양 외대 앞을 지나면서 안내원이 평양에서 수재들이 들어가는 제일 유명한 외과대학 이라나. 대동 강변을 따라 경치가 좋고 가끔씩 주민들이 산책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공해가 없으니 공기 또한 상쾌하다. 유명한 냉면의 본산 옥류관 앞 까지 산책하고 돌아왔다.

5.1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절이라고 한다. 년 중 상당히 큰 명절이고 국가적으로 공휴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또는 직장 동료들과 야외에 나가서 하루를 즐긴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민경대를 참관하다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곱게 옷을 차려입고(여성들은 한복, 남자들은 인민복) 김일성 생가를 참배하기 위하여 줄을 지어 들어가고 있다. 여성 안내원이 높은 톤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우리가 만나본 주민들, 안내원들, 학생들, 접대원들 모두가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대답 또한 거의 같다.

평양의 주요 거리를 돌아보다 대표적인 민경대 학생 소년공전을 관람했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과 적성에 따라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자기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된다. 대동 강변에는 푸에블로 미국 군함이 전시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전시용, 선전용으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흉물스러운 고철 배를 보고 참으로 미국사람들 망신을 다하고 있구나하고 생각했다.

오늘은 개성과 판문점을 방문 한다고 한다. 평양을 출발하여 개성까지 2시간 30분 거리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왔다가 간 그 도로를 따라가는 데 역시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별로



었다. 판문점에 도착하여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기 위하여 차를 기다리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경비가 심하다고 한다. 판문각에서 보는 남한 자유의 집은 조용하고 금방이라도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이지만 지척에 있는 서울하늘을 바라보며 얼마나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가! 언젠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해 본다. 가깝고도 먼 곳이 여기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휴전 협정이 있었던 회담 장소에서는 안내원인 군관의 설명이 참으로 어처구니없이 틀린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 국방군을 앞세워 복침을 하여 인민군이 격퇴 시켰다고 한다. 하늘이 알고 세제가 다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들은 뻔뻔하게 역사를 왜곡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안내원도 그네들의 역사책에서 배웠겠지 6.25도 모르는 세대이니까 무슨 죄가 있겠느냐는 한심한 노릇이다.

개성을 향하여 출발하여 태조 왕건릉과 성군관, 선죽교 등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곳들을 관광하고 평양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도 이번 방북 기간 동안 북한의 실정을 가깝게 보고 느끼며 북한의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산교육이요, 큰 수확이었고 실제 눈으로 보는 북한의 실정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변두리 외곽으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남과 북의 분단의 세월이 반세기 이상 지나고 보나 상호간의 동질성보다 이질감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질감은 문화적인 면이나 생활상에서 볼 수 있고 언어 속에서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가 많다. 이질감을 동질화시키고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자주적으로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자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여도 서로가 한마음 한뜻만 있다면 통일로 가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모든 사람들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며 가깝고 먼 곳이 하나라 가까운 이웃이 되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상의 통일이고 지리적 통일, 이념적 통일은 이차적으로 성취되리라 본다.



##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많은 날씨 속에 하루를 맞는다.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요즘 여러 모습들의 가정이 있다. 밖에서 보면 행복한 가정인데도 깊이 보면 어려운 가정도 많다. 늘 잘 지내야 할텐데,,,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텐데,,,하는 문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 많다.가정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 하는데 가정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내 잘못이야 하는 죄책감 속에 산다 한다.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 수는 없다. 대신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남의 삶의 깊숙한 것을 모른다. 삶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괴로움 그것은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나 혼자 만이 떠안고 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다. 가정은 생명과 같고 그 생명이 태어나고 살고, 회복하고 부활하는 것이라 한다. 그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은 6가지가 있다 한다.

함께함이 첫째고 (부모가 함께함 기도와 가르침 마음을 함께함이고) 용납함이 둘째고 (가족을 생명으로 대하고 남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고 존재자체를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긍정함이 세 번째 덕목이고 책임이 네 번째 덕목이고 그 책임에 의로움이 동반되어야 하며 용서함이 5번째 덕목이라고 한다. 용서함이 없으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 한다.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6번째는 손대점이라 하며 이웃과 낯선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돈은 아끼되 사랑에는 인색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양식과 소망 사람이 공급됨을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도 웃음과 믿음 잃지 않고 가정에 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과 믿음이 떠나지 않게 기도함을 가지라 한다.

우리의 가정 참 소중한데 5월에 우리의 가정을 다시 생각해 본다. (이철수)

## 만 딸

권구자

간밤 꿈에 네 얼굴 보이더니  
오늘 해 저물기 전 내 꿈이 맞으려나

내 어이 너를 두고 이 세상 하직 할고  
단 하나 나의 자랑 나의 기쁨 전부야

방안을 둘러보며 숨 놓는 순간까지  
엄마는 목마르게 너의 이름 부른다.

만딸은 살림 밑천 그 누가 말했었고  
귀하기도 정하기도 굶기도 징하기도

부뚜막의 가마솥 뚜껑이 귀하듯(듯)이  
세상 천지 뚜껑 중 내 뚜껑 제일일세

모여든 얼굴들을 마지막 둘러보며  
허공에 손 저으며 너의 모습 찾는다.

멀리서 아롱아롱 타박타박 걸어오네  
내 살림 나의 밑천 내 첫살 나의 딸아

아껴둔 남은 숨은 남겨둔 숨 한 모금  
내 옆에 너가 오면 너 오면 놓으려고

남은 숨 한 모금을 기일게 마시면서  
엄마는 먼저 간다. 눈에 넣지 못한채.....

-후기- 가마솥에 구수한 누룽지 끓여 내시며 정하게 뚜껑을 탁으시다 말고 늘 만발을 그렇게 집안의 뚜껑이라고 자랑하시며 첫 짐을 싣아주시는 어머님! 그 분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한 발 늦게 도착한 장례식에서 언니를 그렇게 기다려  
섰노라는 아우들의 손만 잡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그리워  
만 지는 어머니께 아글을 드립니다.

## 적비공 같은 이야기

전 응배 집사

이제 완전한 봄철을 맞아 산과들 도시의 곳곳에도 환  
한 봄빛이 가득 합니다. 누구라도 쉽게 행복해 질 수 있  
는(경제적으로는 최악이지만) 계절을 맞아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펼쳐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어떻게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까? 2006학기부터 하바드 대학의  
최고의 인기강좌는 세계의 쟁쟁한 유명학자의 법률, 의  
학, 경제, 정치학들이 아니고 유대인 심리학강사인 벤샤  
하르(40)라고 사람의 행복학이 살인적인 경쟁 속에 매일  
을 사는 하바드의 공부벌레들에게 최고의 인기 강좌입니  
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의미 있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토의합니다.

실패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 실패하라  
고 가르치며 긴장을 푸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엄청  
난 과제물과 시험에 시달리는 공부벌레 학생들에게 구세  
주처럼 나타난 행복론 강의 요체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  
의 비결은 책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래서 명상이 수업인가 하면 8시간이상 잠자는 것이 과제  
물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만족한 편으  
로 이 같은 긍정심리학 강의는 현재 미국의  
100개 이상의 대학에 마련되어 새로운 과  
학인 행복론이 실용적 학문으로 자리잡아가  
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복이 철학자의 담론이나 성직자  
의 가르침을 벗어나 과학의 한 분야로서 자  
리를 잡았다. 행복에 이르는 비결의 큰 요  
소는 유전자다. 행복을 느끼는 원인의 50%  
는 명량하고 긍정적인 천성이란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가 노력해 볼만한 것이란다.

어느 정도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의식  
주가 안락한 정도에 달하면 그이상은 행복과 불행의 별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절대적인 부보다는 친구 이웃 동  
료등에 대한 상대적부가 행복감을 높여준다. 원하는 것  
을 이루었을 때의 행복감도 크다 그런데 이론 후보다는  
이루어지기 전 기대감이 훨씬 더 행복감을 준다.

학력 외모가 행복감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에 반해  
종교와 친구의 역할은 크다 특히 종교와 친구를 통해 타  
인을 도울 수 있을 때의 행복감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유  
지된다는 것이다. 젊음도 아름답기는 하지만 행복을 주  
지는 않는다. 노인들이 더 행복해 한다. 그 이유는 자신  
이 가진게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 가진 것마

저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열  
마간의 재산, 곁에 남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 자체를  
감사해하며 매울 비우는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다.

링컨은 사람은 자신이 결정한 분량만큼 행복해 질수  
있다고 말했으며 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나는 행복합니  
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최근 김수환 추기경의 삶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  
리가 이곳에 이민 온 이유를 들어보면 잘 살아보겠다,  
자녀교육을 잘 시켜보겠다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아내를 남편을 자식들을 칼로 찌르고 총  
격으로 살해하고 불 질러 죽이고 그리고 자살하는 일들  
이 너무나 쉽게 줄줄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물질적 풍요를 지상목표로 삼고 있  
는 한인 커뮤니티의 왜곡된 가치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깝고 쉬운 예로 대도시의 웬만한 한국식당 주차장으로  
고급사교클럽이나 고급차 딜러 주차장으로 착각할 정도  
입니다. 돈 많이 벌어 타운이나 교회에서 과시하고 대접  
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 가치입니까? 물질적인 부는 뜬구  
름 같은 것임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4.29, LA폭  
동, 9.11테러, 카트리나 재해, 지진, 해일 등을 통해 경  
험하지 않았습니까?

호화로운 집, 자랑스런 자식은 물론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지속여부는 내 의지만으로는 되는 것  
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물질 외의 것에서 행복과 삶의 가치를 찾는 가치관  
의 새로운 정비가 있어야 나 개인도 커뮤니  
티도 좀 더 건강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타락이후 하나님을 가장 닮은 피조물  
이 있다면 그것은 돈 일수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본래의 기능인 교환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인간에게 윤리적 차원을  
넘어 종교적 차원까지도 열어 준다는 말입니  
다. 다른 말로 한다면 돈에 대한 우리의 자  
세가 어떤지에 따라 돈은 삶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  
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약성  
경 속에 나오는 구절 중 가장 많은 구절이 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 2000번이나 넘어(2489?) 믿음이나  
구원에 관한 구절의 1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돈의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영적의 힘 다시 말해  
서 MAMMON(부, 황금만능)의 무서운 실체를 깨닫게 하  
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 우편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42센트하는

우표 값이 지난 5월 11일부터 2센트 더 오른 44센트가 되고 1  
온스 미만의 큰 봉투나 소포 요금도 5센트씩 더 올라 각각 88  
센트와 1.22 달러가 되었다. 국제 우편 요금도 인상되어 한국  
은 1온스 미만은 98센트로 되었다.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탄생한 줄부들의 전성시대로 과 소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Trademark, 미덕처럼 되어 탐욕이 넘칠 되는 시대 속에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돈 버는 일에만 열심이다가 어느 날 이마저의 평온도 깨지면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왜? 아마도 '병든심령'이 해답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존재 보다는 소유가 우선시되어 인간의 정체성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다 어느 날 그 정체성이 무너지면 탈출방법으로 극단적인 방법인 폭력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은 돈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Spirit)적인 것과 육(Body+Soul)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에 대해서만 많이 집착하며 가꾸며 돌봅니다. 예로 현 세상은 성형수술은 예사이며 머리는 텅 비어있어도 몸짱, 얼짱만 되면 프는 세대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영혼이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이 무의합니다.

창세기(2:7)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사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오면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이 없으면 하나의 물건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의학의 발전을 위해 쓰여 진다해도 해부용 자료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6:63)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되돌아가서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다음에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서도 지금 이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이 뭐 별건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 내치지에 작은 것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기쁨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그게 행복이겠지요! 너무 급하게 가려고 너무 높이 오르려고도 하지 않고 한걸음씩 여유롭게 나아가는 게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 유행가에 이런거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산다는 건 좋은거지 수지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웃한별은 건졌잖소" 이 노래가사가 바로 긍정적으로 행복을 찾는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다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골치 아프니까 다 접어버리고 제일 쉬운 길로 가 볼까요?

그럼 성경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성도들의 올바른 생활 자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찾고 펴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3:13)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 (5:16) 항상 기뻐하라 (천국 시민권 파서 기쁨이 용솨음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주셨으니),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를 수 있으니 이 또한 행복이겠조), (5:18) 범사에 감사하라 (천국의 기쁨을 얻을 것이며 구원을 주실 것이니)

눈부신 봄날 마당으로 들로 나가셔서 활짝 열려진 꽃들에게서도 행복의 비결의 속삭임을 들이시고 마음에도 봄별처럼 온화한 파스함이 넘치는 신바람 나는 멋진 봄을 맞이하며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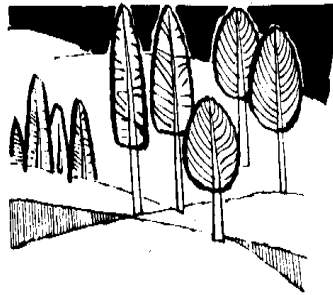
[테버에서 온 편지]

## 광야속의 축복받은 교회

최 건영 권사

앨버커키하면 여러가지가 생각납니다. Burrito, 테니스, Balloon Festival, 아름다운 석양 등등 뉴멕시코의 별명과 같이 인상깊고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앨버커키 교회를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와 사랑, 또한 지혜와 헌신이 작지만 영적으로 강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줄곧 앨버커키를 광야, 혹은 황야로 표현하였습니다. Sandia 산에서 황야의 무법자가 거친 돌을 헤치며 말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그려보곤 하였습니다. 그런



데 이땅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산 호렵과 같은 Sandia 산이 든든하게 버티고있고, 그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음직한 광야가 있습니다. 실제 감리교 홍보영화를 앨버커키가 가까운 곳에서 찍을 정도인것을 보면 앨버커키의 지세가 이스라엘의 광야와 비슷한 것이 나만의 생각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앨버커키 교회의 역할이 바로 "훈련소

"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앨버커키 교회는 드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기위해오고, 또 일정기간 훈련을 마치면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듯 그렇게 드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광야의 야성(野性)을 키워 내보낸다면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를 바로잡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때 삼촌께서 태국의 방콕에 특파원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도를 펴면 방콕부터 찾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지도를 볼일이 있으면 제일먼저 뉴멕시코 앨버커키를 봅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앨버커키의 중요한 곳은 저의 가슴속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이킹을 하는



Sandia 산의 Trail, Burrito를 먹는 Frontier Restaurant, 땅을 흥벅 흥벅 울리며 운동하는 테니스 코트 등등... 빠질수 없는 것은 영화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에서 화면이 물속 깊은 곳으로 부터 시작해서 당시의 타이타닉 배 속의 사람들을 비추면서 남녀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과 같이, 저는 Academy

길을 주옥 내려와 Edith Ave. 에서 꺾어지고 다시 Tyler 길을 꺾어져서 교회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혹시 앨버커키 교회는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최소한 몇사람은 늘 앨버커키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가운데 이 광야에 세워진 앨버커키 교회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을 잘 파악하고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 더없는 영광을 돌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딸과 자살 기도' 가석방 한인 여성에 도움의 손길 붓물

**'8년형 이춘임 씨 돕기'...후원회 5천불 모아, 한인들 동참 기대**

친팔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다 살해미수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던 한인이 가석방되자 한인들의 온정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이춘임을 사랑하는 모임'은 18일 회의를 갖고 오는 4월 7일 출감하는 이춘임씨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결혼으로 네이퍼빌에 거주하던 이춘임씨는 지난 1999년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두 명 모두 생명은 건졌으나 이 씨는 친자살해미수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번에 가석방된다. 사건 발생 후 일부 목회자와 교회가 중심이 돼 이 씨를 도와왔고 기금 모금을 통해 보석금과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시카고 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연합회 회장을 맡았던 이춘화 씨는 "한국인의 정서로는 이해가 될만한 사건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셈이 됐다. 이 씨의 사정이 딱해 많은 이들이 정성을 모았고 출소를 앞두고 사회 적응까지만 돕자는 생각에 기금을 모금했다"고 말했다. 모임은 현재까지 3천600여 달러를 모았으며 출소 때까지 5천달러를 모금, 이씨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예율립 여성합창단이 공연을 수익금 500달러를 기부했으며 제일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등에서도 동참했다. 이 씨의 출소 후 숙소를 제공할 예정인 팔로스 연합감리교회 정은혜 목사는 "이 씨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출소한다. 딱한 처지에 놓인 이 씨가 다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온정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씨가 출석했던 글렌브룩 연합감리교회 백영민 목사도 "이 씨는 가석방 후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 본인이 미용이나 네일 기술을 배우길 원하는데 한인들이 나서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글렌브룩 연합감리교회 847-205-9642. 박훈호 기자

## 붉은 태양은 철조망 넘어 지고

이 춘임

1984 년 대학을 갓 졸업한 나는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신세타령만 하며 식구들 눈치만 보는 신세였다.

어렸을 적부터 나는 미국을 동경하며 아메리칸 드림에 젖어, 미국인들이 많은 이태원으로 나돌아 다니며 신데렐라의 꿈을 꾸었고, 나를 이 한국 땅에서 꿈같은 미국 땅으로 데려가 줄 왕자님을 찾아 헤매었다.

바늘구멍같이 좁은 취업문에, 게다가 여자라면 더욱이 알아주지 않고, 연령제한에, 여자 나이 스물넷이 넘으면 똥값 취급에 명함 한 번 내밀 수도 없이 어려운 실정이고, 변변한 신랑감 하나 물지도 못한 처지라면 그야말로 인생 종친 것이나 다름없던 그런 한국 땅이 나는 싫었다. 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이태원은 신데렐라의 꿈을 꾸며 미국행을 위해 물려드는 여대생들로 줄을 이었다. 그중에는 놀람게도 내노라 하는 명문대학의 여학생들도 꽤나 많았고, 꽤나 잘 산다는 집의 자녀들도 그곳으로 물려다니며 미국행을 꿈꾸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엇이 그렇게 미국을 마치 환상의 나라처럼 우리에게 비추어 지게 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물 건너 미국에서 온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정신을 잃었다. 미제라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사들이는 우리나라 사람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물론 나도 포함해서 하는 말이지는 하지만.

왕자님을 찾아 헤매던 나에게 어느 날 다가온 것은, 나를 이 땅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태워 줄 파란 눈 미국인이 아닌, 소위 이태원 건달인 깡마른 한국 남자였다. 깡뚱하고 예브장하게 생긴 얼굴로,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DJ를 하고 있던 그는, 부드러운 성품으로 내게 무척이나 따뜻하게 해 주었기에, 얼마 안가 나는 나의 첫사랑과 모든 것을 그에게 주고 말았다. 한동안 나는 그와의 결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의 부모를 뵈고 인사도 드리고, 그 또한 우리 엄마에게 자신을 사위간이라고 소개했을 정도였기에, 두 집안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결혼하리라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가 내 첫사랑이었든 만큼, 그를 아주 많이 사랑했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나의 사치스러웠던 아메리칸 드림을 펼쳐 버릴 수가 없었고, 틈만 나면 나의 왕자님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어느 날 그가 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했을 때에, 못되고 철딱서니 없는 나는 단 한 장의 편지로 이별을 알렸고, 그를 헌신짝처럼 차버렸다.

10 년 후 내가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의 감옥 방에 누워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은 다름 아닌 바로

그였다. 인과응보라고 했던가. 만일 내가 그때 그와 결혼해서, 토끼새끼 같은 아이들 낳고 시부모 모시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더라면, 이렇게 피붙이 하나 없는 머나먼 이국땅에서 감옥살이 하지는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후회를 해 보지만, 이미 었질러진 물인 것을 어쩌하겠는가.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을...

그와 헤어 진지 1년쯤 된 후, 나는 미 육군에 재직 중이던 남편을, 어느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와의 결혼을 열심으로 추진했다. 불같은 성격에 좀 폭력스러운 면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이 사람을 놓치거나 앓을까 늘 불안해하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에 골인해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한다는 생각에 늘 조급한 마음을 어쩔 수 없었다.

운이 좋았던 것일까, 남편과 사귀던 1년이 채 못 되어 바라던 대로 그와의 결혼에 골인을 했고, 몇 달 후에 딸아이를 임신했다. 배는 불러오고 그의 난폭한 성격은 점차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잘못된 선택임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다. 그는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살았고, 그때마다 나와 이혼하고 싶다는 등, 아이도 원치 않는다는 등 내게 겁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가까운 터라, 나는 더욱 더 남편에게 버림받을까봐 별별 떨었고, 혼혈아로 태어나 버려진 다른 아이들처럼, 천덕꾸러기로 한국 땅에서 자랄 아이를 생각하면서 더욱 불안해 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는 시간들은 가시 방석이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아무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혼자서 끙끙 앓기만 한 그 기나긴 시간들... 미국행 비행기도 타보지 못한 채 이렇게 나의 인생이 끝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남몰래 눈물짓던 날이 얼마나 많았었나. 말끝마다 영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등 갖은 수모를 퍼 부으며, 그는 나의 자존심을 서서히 갉아 먹고 있었고, 그것이 악마 같은 그의 성격의 작은 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나는 몰랐다.

1989년 2월에 딸아이를 낳고 같은 해 7월, 식구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뒤로 한 채 철딱서니 없고 어리석은 나는 희망에 부풀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식구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어머니는, 마치 나의 불행을 이미 내다 보신 듯, '무슨 일 있으면 그곳에 있지 말고 그냥 이곳으로 돌아와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시댁 식구들이 나와 기다리던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내린 우리 셋은 남편이 다른 부대로 갈 때까지 지낼 시부모의 집으로 향했다. 시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의 기억 속에는 50년대의 한국에 대한 인상만이 남아 있었기에 그 때까지도 한국을 두려움과 가난에 찌든 미개인이 사는 나라로 업신여겼다. 또 그들은 마치 남편이 불쌍한 나의 인생을 구원한 대단한 사람인 양 거들먹거리기까지 했다. 그런 그들의 태도는 결혼 10년이 지날 때까지도 여전히 변할 줄을 몰랐다. 그런 그들

이 결코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딸아이를 위해 묵묵하게 잘도 참아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그런 언행은 나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 짓누르기 시작했다.

남편의 직업상 우리는 미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살았다.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이 미국으로 온 뒤 버림받거나 억울하게 이혼 당하는 경우를 흔히 보아왔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태원을 떠돌아다니는 악몽에 종종 시달렸다.

조지아의 여름은 무척이나 뜨거웠다. 그곳에서 남편은 9년 동안의 군대 생활 끝에 금기야는 군대에서 불명예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무능력하기만 한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조차 할 줄 몰랐다. 남편의 고향인 시카고로 와 정착은 했지만, 남편은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도 못한 채,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난폭해져만 갔다. 외롭고 지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미국인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를 보며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한 채 허공에 매달려 있는 꼭두각시 마냥 늘어지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난폭해져가는 남편, 그리고 그의 새로운 여인...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내게 남겨주신 재산으로 그는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고 집에 있는 날이 점점 줄어 갔다. 나와 딸애에게 소리소리 지르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마치 죽음과도 같았고, 별경게 달아오른 얼굴로 성내는 모습이 마치 악마같이 느껴졌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 누군가 제발 도와 달라고 목 놓아 울었지만 도움은커녕 나의 눈물조차 닦아 줄 사람조차 없었다.

그렇게 되풀이되던 어느 날 저녁 나는 그동안 모아둔 수면제 200알을 조금씩 입에 털어 넣었고 아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버린 또 다른 암흑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동안의 모든 좌절이 마지막이었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의 고통도 슬픔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고자,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자리에 누웠다.

정신이 희미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깨어나 보니, 나의 손과 발은 묶여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계속해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겨우 정신을 차려 응급실에서 병원 독실로 옮겨온 나를, 형사들은 무정하게 다그치기만 했다. 나는 딸아이가 무사한지를 연거푸 묻고 그들이 아이는 무사하다고 대답해 주어 안심은 했지만, 그것으로 딸아이와의 인연은 끝이었다. 그날 이후 다시는 딸을 못 보았으니까...

며칠 후 그들은 나를 살인 미수죄로 일건해, 차디 찬 감옥의 독방으로 밀어 넣었다. 사방에서 울리는 비명소리에, 목이 터져라 욕을 해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새도록 문을 흔들며 대는 등, 그곳은 다름





아닌 살아 있는 지옥이었다. 피붙이 하나 없는 이곳에서 나는 걸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떨었고 몸서리치도록 외로웠다.

이 모든 것이 오직 꿈이기를 바랐다. 어서 이 꿈에서 깨어나기를.. 울어도 울어도 멈추지 않는 서러움. 그러나 그렇게 계속 우는 나를, 그들은 10개월 동안 강제로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다량의 약물을 복용토록 했고, 그 결과 난 하루 온 종일 정신을 못 차리고 잠만 잤다. 가끔 눈을 떠 보지만 빙글빙글 돌아가는 땅바닥에서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그곳에 갇힌 지 2주 만에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의 새 여인은 벌써 내 집으로 들어와 살림을 차린 상태였다. 돌아가신 엄마의 재산으로 장만한 집과 딸아이를, 단지 동반 자살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는 모든 것을 내게서 부정하게도 빼앗아 버렸다. 판사는 내게 딸아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 것이며, 편지나 전화 통화는 물론, 심지어는 생일 카드조차 보내지 못하게 해버렸다. 내가 만일 눈 파랗고 금발 머리의 미국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내게 매정하고 부당하게 대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도 해 본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운 나는 철없고 허탈되었던, 젊은 날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자유의 나라라고 우리가 꿈꾸고 있던 미국은 자유 평등 사회가 단지 백인에게만 적용되듯, 특히 법적으로 막물려 있을 때는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에게는 매물차고 부당한 취급을 하는 미국인들. '억울하면 네 나라로 돌아가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태도들을 지난 17년 동안 수도 없이 보아왔다. 나의 꿈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처절한 시간이었다.

다행히도 이곳 한인들의 도움으로 사립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역시 같은 핏줄인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구나 함을 새삼 느껴본다. 약물에서 해방되면서 비로소 포렛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4년간의 기나긴 법정 투쟁 끝에, 8년이란 형량을 선고 받고 이곳 주립 형무소로 옮겨 왔다.

천여 명의 여자 죄수들이 있는 이곳에서 단하나 동양인인 나는, 당연히 남들의 시선 집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지 않으면 위협까지도 받을 지경이었다. 이곳 역시 쉽지는 않은 곳이었다. 한 방에 19명씩 수용해 있는 이곳에는, 저마다 각양각색의 성격과 다양한 범죄의 꼬리표를 달고 살인자에서 중도독까지, 또 22년 옥살이 고참이 있는가 하면, 갓 들어온 신참, 형무소를 마치 자기 집 드나들 듯 평생 드나드는 마약 중독자들까지, 천차만별의 사람들의 집합소이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한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도 참으로 다양한 것이 마치 판 세계 같다. 내가 이곳에서 제일 처음 맡은 일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다. 입이 터져 갈라진 무거운 군화 속으로 물이 새어 들어와, 한동안은 발의 가려움증으로 무척이나 고생을 했다. 그릇들은 왜 또 그리 무거운지, 저녁이면 발목이 시

큰거리고 발등이 별경게 부어오르기가 일쑤였다.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것은 음식 문제였다. 워낙 한국 토종 음식만을 고집하던 내가, 밥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으니, 매일같이 구수한 된장찌개에 뜨거운 흰 쌀밥이 항상 눈에 선한 것이, 아직도 미국 음식에 제대로 적응이 잘 안되니 참으로 걱정이다.

그래도 모범수로 인정을 받은 후에는 교도소 철망 바로 밖에서 꽃을 심고 가꾸는 일도 했다. 꽃을 심으며 자연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조금씩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해가는 내 스스로를 보게 되었다. 무언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힘이 솟아날 듯 발견하게 되었다. 매일같이 '이젠 다 잘 할 수 있어' '이젠 무엇이든지 다 자신 있어'라고 되뇌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기고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지는 것이 느껴지고 점점 평화가 물려 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 모르는 단어를 붙잡고 씨름할 사전 하나 없었지만 교도소 내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과정보도 이수했고, 위생사 자격증도 땀다. 전에 일하던 곳에서 아직도 나를 기다려 주고 있고 이곳의 교회 분들도 항상 격려의 편지를 보내 주신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도 지금은 나의 집이 되어 있는 숙소를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본다.

얼마 전 16살 생일을 맞은 딸애의 사진을 동서를 통해 받아보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준 것에 또한 감사를 느낀다.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그때 그릴 수밖에 없었던 못난 엄마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다시 품안에 안아볼 날을 상상해 본다.

이곳에서 나가게 될 날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새로운 삶에 대해 조금은 겁도 나고 걱정도 되지만, 돌이켜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며, 힘들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잘 견뎌낸 자신이 대견스럽게 느껴진다. 비록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었지만 또 다른 삶의 소중함을 쌓아갈 수 있었던 이 기간은 단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나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라도 사실 그것은 단지 내 인생의 조그마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미워하기 보다는 그들을 용서할 때에 내가 더욱 강해짐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 다른 내가 태어날을 지켜본다.

지나온 날들보다는 내 앞에 펼쳐진 날들이 더욱 소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에 억울해 하기 보다는 앞으로 쌓아갈 새로운 삶에 가슴 두근거리며, 희망차게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려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더욱 복잡해질 뿐이고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봄게 물든 태양이 철조망 너머로 지고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세상 밖에 갓 태어난 아이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레 내딛어 보며, 지금 이 시간들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닌, 단지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뿐임을 느낀다.

문득문득 아직도 지나간 날들의 고통이 뇌리를 스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아픔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때가 없지는 않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토닥거리며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이제 잘 할 수 있어. 다 자신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또 다시 추슬러 본다. 나는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임을 언제나 내 스스로에게 되뇌어주며, 오늘도 승리를 향한 웃음을 지어 본다. (March, 2006)

<제 27회 미주 한국일보 생활수기 가작 당선작: 2006년 7월 22일자 신문에 게재> 이춘임 Chun Anderson, 연락처: 정은혜 목사 Eun-Hae Chung, Pastor, Napervill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21 E. Franklin Ave., Naperville, IL 60540;  
630-404-6827; ehchung@yahoo.com

## 웃어봅시다

공처가 대회 수상자 소감

1. 장려상 수상자: 아내의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2. 동 상 수상자: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한다.
3. 은 상 수상자: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존재한다.
4. 금 상 수상자: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5. 특별상 수상자: 니들이 아내를 알아?
6. 공로상 수상자: 나에게 아내가 없다는 것은 저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7. 대 상 수상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해도 나는 오늘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는 남편일까요?  
(전 용배 검사 제공)

## 알버커키의 스시 레스토랑 제팬고

# JAPENGO SUSHI

A TASTE OF TRADITIONAL JAPANESE  
WITH A CONTEMPORARY TWIST

LUNCH Mon - Fri 11:30-2:30pm • Sat & Sun 12:00 - 2:30pm

DINNER Mon - Thurs 5:00-9:30pm • Fri & Sat 5:00-10:00pm • Sun 5:00-9:00pm

Phone: (505) 344-4469  
Fax: (505) 344-2654

Century Rio 24 Complex  
4959 Pan American Freeway; Suite C

## 김영신 부동산

"주택 구입 절호의 기회"  
"최저 이자율에 집값도 급락"  
"First Time Home Buyer", \$8000 Tax Credit!

✱ Plus, Loan Modification/융자 조정 프로그램

경제 침체로 인해 직장을 잃으셨거나,  
사업이 부진해서 주택 페이먼트  
어려우신 분 도와드립니다. 페이먼트  
삭감 또는 이자율 재조정 가능합니다.

✱ Also, "상업용 건물 투자/새로운 사업체 구매"

Call me for All-In-One Service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JADE   
Southwest Realtors  
(505) 293-5500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chals2@hanmail.net로 연락주세요

## 알버커키

### Albuquerque

####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lbuquerque,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lbuquerque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505-883-2665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505-338-2424)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lbuquerque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lbuquerque, 505-833-5755

Yan Ching: 4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505-271-8700)

####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추럴: 2302 Morris NE, Albuquerque (505-881-3210)

####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823-2725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lbuquerque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87103 242-8542

#### 모텔 Hotel 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lbuquerque (505-881-3210)

####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킴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Fredericks: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최귀본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ght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266-3231

####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lbuquerque (505-883-9009)

####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lbuquerque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lbuquerque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839-8627

####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i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 종교 Church

갈릴리장로교회: 목사님 요절에 의해 정보를 공개 안합니다

샌타아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lbuquerque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E Albuquerque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505-903-2297)

####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765-5098 cell 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332-6663 (cell) 379-0433

####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897-6889

####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lbuquerque (505-271-2633)

#### 태권도 TaeKwonDo

US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NE B35 ABQ, NM 87111 296-0336

#### 한 의사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710-7504)

Dr. Park: 5800 Forest Hills Dr NE, Albuquerque (505-514-2900)

#### 화랑 Gallery

Park Fine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querque (505-345-6644)

## 리오란초

### Rio Rancho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 #0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 신발 Shoes

Rio Shoes: 1808 32nd St SE, Rio Rancho (505-892-4924)

## 산타페 Santa Fe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chalss2@hanmail.net로 연락주세요

##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 877-4572  
Cell(505) 877-4572 (황세희씨 남편 Damon Duran)

## 갤럽 Gallup

### 신발 Shoes

Rio West Mall: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 라스크루세스

### Las Cruces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 Chinese: 1001 University Ave., Cl, Las Cruces (575-496-2445)

##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132 S. Solano Dr., Las Cruces (575-635-1624)

## 화밍톤

### Farmington

##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 알버커키 주요

### 전화번호

## Electricity

Public Service Company of New Mexico: 414 Silver SW, Albuquerque, NM 87158 Customer Service: 505-246-5700

Power Failure or Downed Power Line: 505-246-5890

Gas  
Public Service Company of New Mexico: 414 Silver SW, Albuquerque, NM 87158 Customer Service: 505-246-5700  
Natural Gas Emergency, Service or Repair: 505-345-1841

## Water

City of Albuquerque Water One Civic Plaza NW Room 1026: Albuquerque, NM 87103 Customer Service: 505-768-2800  
Water/Wastewater Service or Repair: 505-857-8250

## Cable Information

Comcast Cable  
4611 Montbel Place, NE, Albuquerque, NM 87107  
505-344-0690

## Banking

Bank First  
2900 Louisiana Blvd NE # 101 Albuquerque, NM (505) 872-1536

Bank Of Albuquerque  
16 offices in Town (505) 855-0855

Bank Of America  
18 offices in Town (505) 282-2670

Capital Bank  
4700 Montgomery Boulevard NE Albuquerque, NM 87109  
505-830-8040

Charter Bank for Savings PSB  
5200 Eubank Boulevard NE: Albuquerque, NM 87111  
505-332-5591

Mountain Community Bank of Albuquerque  
6100 Coors Boulevard NW: Albuquerque, NM 87120  
505-890-6465

New Mexico Bank & Trust  
650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505-830-8100

## Medical Facilities

Childrens Hospital of New Mexico  
2211 Lomas Boulevard NE, Albuquerque, NM 87106  
505-272-5437

Presbyterian Hospital  
11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505) 841-1234

St Joseph Healthcare  
8080 Academy Rd NE Albuquerque, NM (505) 727-3400

University Hospital  
2211 Lomas Boulevard NE, Albuquerque, NM 87106 505-272-2111

New Mexico VA Health Care System  
1501 San Pedro Drive S.E., Albuquerque, NM 87108 505-265-1711

## Public Schools

Albuquerque Public School  
842-8211

CNM  
227-3000

University of New Mexico  
277-0111

New Mexico State (Las Cruces)  
1-800-662-6678

University of Phoenix at Albuquerque  
821-4800

## Transportation

Albuquerque Bus Transportation Center  
842-9188

Yellow Cab  
243-7777

Albuquerque Cab Company  
883-4888

Avis Rental  
1-800-831-2847

AAA Auto Club  
291-6611

Budget Rent-A-Car  
1-800-527-0700

Hertz  
1-800-654-3131

## Deaf Services

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841-8752 NM Relay Network for the Deaf  
1-800-659-8331 Voice  
1-800-659-1778

## Emergency Numbers

APD Non-Emergency  
242-COPS (2677)  
APD  
Records/Information  
768-2020  
APD Telephone Reporting Unit 768-2030  
APD Crime Prevention Office 924-3600  
CRIMESTOPPERS  
843-STOP (7867)

## General Assistance Numbers

City of Albuquerque  
505-768-3700  
Mayor's Office  
505-768-3000  
Mosquito Control  
505-873-6613  
Non-Emergency Police Response  
505-242-2677  
Fire Department

505-243-6601

Bernalillo County  
Animal Control:  
505-873-6706

Crises Center:  
505-831-7002

Office of Senior Services:  
505-764-6400

Social Services:  
505-841-9500

Veterans Services:  
505-346-6562

Emergency Management:  
505-861-2178

Parks and Recreation:  
505-764-6850

## State of New Mexico

Examination Office:  
505-841-2475

New Mexico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505-864-7250

## Service Agencies

Bernalillo County  
Chapter American Red Cross:  
505-265-8514

Salvation Army:  
505-242-1416

Poison Control Center  
272-2222

Police Information  
768-2020

## Attractions

Albuquerque Museum  
2000 Mountain Road Northwest, Albuquerque, New Mexico 87104  
Tel: 505 243 7255  
  
Old Town Plaza  
One block north of Central Avenue, at Rio Grande

Boulevard, Albuquerque,  
New Mexico  
Tel: 505 243 3215

Indian Pueblo Cultural  
Center  
2401 12th Street  
Northwest, Albuquerque,  
New Mexico 87104  
Tel: 505 843 7270

Sandia Peak Tramway  
10 Tramway Loop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22  
Tel: 505 856 6419

Biological Park  
2601 Central Avenue  
Northwest, Albuquerque,  
New Mexico 87104  
Tel: 505 764 6200 Fax:  
505 764 6281

New Mexico Museum of  
Natural History  
1801 Mountain Road  
Northwest, Albuquerque,  
New Mexico 87101  
Tel: 505 841 2800

Maxwell Museum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New Mexico,  
University Boulevard,  
Albuquerque, New Mexico  
87102  
Tel: 505 277 4405

National Atomic Museum  
Ubank Albuquerque, New  
Mexico 87117  
Tel: 505 284 3243

University Art Museum  
University of New Mexico  
Center for the Arts,  
Albuquerque, New Mexico  
87102  
Tel: 505 277 4001

Petroglyph National  
Monument  
Unser Boulevard,  
Albuquerque, New Mexico  
87103  
Tel: 505 897 8814

Ernie Pyle Branch  
Library  
900 Girard Boulevard  
Southeast, Albuquerque,  
New Mexico 87106  
Tel: 505 256 2065

Torquoise Museum

2107 Central Avenue  
Northwest, Albuquerque,  
New Mexico 87104  
Tel: 505 247 8650

Rio Grande Nature  
Center State Park  
East bank of Rio Grande,  
2901 Candelaria Road  
Northwest,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Tel: 505 344 7240

Rattlesnake Museum  
202 San Felipe Street  
Northwest, Albuquerque,  
New Mexico 87104  
Tel: 505 242 6569

Jonson Gallery  
1909 Las Lomas Boulevard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2  
Tel: 505 277 4967

ABQ Recreation  
<http://www.abq.gov/recreation.shtml>

Others

Voter Registration:  
Bernalillo 768-4687

Voter Registration -  
Sandoval  
867-7572

Albuquerque Chamber of  
Commerce  
764-3700

MVD  
General Information  
1-888-683-4636

Albuquerque  
Journal/Tribune  
823-7777

National Weather  
Service  
821-1111  
ABQ Weather

도와주세요

#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chalss2@hanmail.net](mailto:chalss2@hanmail.net)로 연락주세요 \*\*\*

정보 마당

구인/구직

렌트/부동산

사고/팔고

## Coupon/쿠폰

# Kim's Oriental Market

## 한국 식품 / 한국 비디오

2306 Morris NE  
Albuquerque, NM 87112  
(On Morris and Menaul)  
(505) 296-8568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쿠폰을 가져오시면 50불 이상  
구입시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expire 7/31/2009